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인천시 교통정책과

2020. 4. 6.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2020. 4. 30.

대전시 교통건설국 공공교통정책과

2020. 5. 18.

인천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인천시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21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곳)의 전 수조사를 실시하고,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하여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 시설 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충청남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충청남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18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설치하고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39곳)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250곳)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 설치(31곳) 등을 실시한다. 또한 6월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414곳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한편 노면표시 등도 개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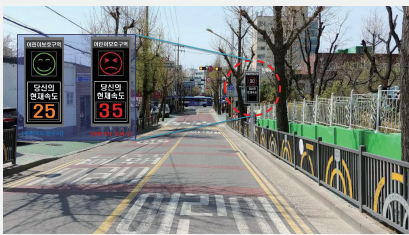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박차

대전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하고, 노후 교통신호기와 철주를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 개선에 나선다.

시는 먼저 서구 햇님네거리 등 3개 교차로의 노후 철주와 오동작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신호등 설비 32개를 올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KT연수원 외 18곳의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이 신설되고, 교차로 32곳의 노후 교통신호제이기도 교체된다. 또한 3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를 신설하고, 갈마초등학교 등에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

출처: 인천시. (2020). 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한다. 4월 6일 보도자료.